"풍성함으로 행복해 지는 인생" 전도서 인생론 시리즈 8
(전도서 5:10-20)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코헬렛)은 인생사 가운데 '물질론'에 대해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본문 구절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지폐문화가 아니였음으로 '은'을 요즘 말 로 바꿔 말하면 '돈'을 말합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돈을 모아 얻은 소득의 재산의 풍요로도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물질론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석했느냐가 가장 진리의 답 일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 늘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말씀하셨고, 때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 길 수 없으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론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에 결단을 하고 나누어 주고 섬기는 일에는 긍정적으로 칭찬과 축복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100프로 확신의 찬 약속으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도 우리 주님도 만족에 끝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 보다 더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단순히 재물이 아닙니다. 물질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강력한 영적 파워가 그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이신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말 을 합니다. "돈은 힘 있는 권세들 가운데 하나다. 예수님이 부를 지칭할 때 아람어 닌 '맘몬'을 사용하실 때는 그 단어에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맘몬)을 겸하여 섬기기 못하느니라 (마6:24)'라고 말씀하실 때 **맘몬을 이를테면 하나님의 경쟁 신(rival god)으로 인격화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맘몬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고 맘몬은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려고 드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물질 만능시대에 모든 이에게 신과 우상이 될 수 있는 맘몬이라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뉴장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실 것인 맘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잔의 소득으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참 자족함 속에 늘 나누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풍성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탐심과 소유 욕으로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주신 몫에 자족하며 먹고 마실수 만 있다면 행복은 늘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의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은 살 수 없는것이죠. 이런저런 약값을 살 수 있는 돈의 소유 보다 살 수 없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과 가치는 해 아래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루 하루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
"한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12)

일반집회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교회학교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영아부	주일 오전 12시
유아부	주일 오전 12시
유치부	주일 오전 12시
초등부	주일 오전 12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2시
러브미션부	주일 오전 12시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선 교 회	김성준 목사 (617)949-1118
유 치 부		2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 패 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폴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비 기독교TV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4년 11월 3일

1부 예배 8:00am |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 글로리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38번(시편92편) '#38(Psalms 92)'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Creed'
찬송 Hymn	새19장(통44) "찬송하는 소리 있어" 'Hark, ten Thousand Harps and Voices'
기도 Prayer	홍성로 장로 Elder. Sung Ro Hong
성경봉독 Scripture	전도서(Ecclesiastes) 6:1-9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 (1, 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은혜 아니면"
설교 Preaching	**"나는 불행한 인생인가? 행복한 인생인가?"** "Is My Life A Miserable One Or A Fortunate One?" 김학진 목사
*찬송 Hymn	"예수 인도하셨네"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기도	백미화 집사
공동체 소식	영상
성경봉독	요한일서 3:14-24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설교	**"섬김이란 정체성"** 김성준 목사
찬양	"낮은 곳으로"
축도	김성준 목사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